

고대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물질문화

강 건 우*

요약

본고는 고대 바닷길을 따라 한반도에 전해진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한반도에 유입된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산 물품(물질)으로 유리구슬, 향약(香藥), 진주, 대모(玳瑁)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마한-백제권역의 고알루미나계 소다유리는 인도 남부,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평 예덕리 1호분, 공주 무령왕릉 등에서 출토된 태국산 착색제를 내포한 유리구슬의 존재는 물질문화의 이동을 뒷받침한다. 향약의 경우, 『삼국사기』와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752년)에서 그 사용과 유통이 확인된다. 고대인들은 개인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에 향을 사르기도 하고, 위생이나 옷의 관리 등을 위해 향을 피웠다.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쇼쇼인(正倉院)에 동남아시아산 침향목(沈香木)이 전하고, 사카이(堺) 시에 동남아시아산 백단(白檀)으로 만든 관음보살입상(7~8세기 작)이 전한다는 점에서 향약의 가치와 유통을 알 수 있다. 당송대(唐宋代) 동서 간 물품의 이동은 해상루트의 발달에 관련한다. 중국의 주요 지역에 설립된 시박사(市舶司)와 동남아시아 인근에서 발견된 9~10세기 난파선을 통해서 원거리 교역의 규모가 확인된다. 이 시기 직접 혹은 중계무역의 형태로 외국과 한반도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물질문화의 확산에는 무역 상인뿐만 아니라 승려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승려들은 구도의 길에서 물질문화를 경험하고 전파했을 것이다.

주제어: 바닷길, 유리구슬, 향약, 구법승, 물질문화

*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박사과정, kunu100@korea.kr

I. 머리말

2009년 1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1층 심주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탑의 창건 당시 봉안한 사리장엄(舍利莊嚴)이 발견되었다(도 1). 사리장엄에서 금동제사리외호(金銅製舍利外壺),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 금제구슬(金製玉), 자수정(紫水晶), 금동제고리(金銅製環), 은제관식(銀製冠飾), 청동함(靑銅盒) 등 모두 72건 9,947점에 이르는 유물이 나왔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336-341). 특히 금제사리봉안기에는 ‘좌평 사택적덕(佐平沙宅積德)의 딸 백제왕후가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창건하였다’는 내용이 남아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¹⁾ 그동안 수수께끼였던 7세기 익산 미륵사 창건의 주체를 알 수 있는 증거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당시 금제사리봉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고대의 물질문화 연구에 주목해야 할 유물이 사리장엄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리장엄 곳곳을 가득 채운 800여 점이 넘는 진주가 그것이다(도 2). 진주는 당시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았으며, 미륵사지 발굴 이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유물이다. 이후 칠곡 송림사 사리장엄구에 등장하지만, 미륵사지 사리장엄처럼 많은 진주가 발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당시 진주의 주요 생산지는 페르시아와 동남아 베트남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미륵사지 발견 진주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수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주경미 2009, 14-15). 이는 동서 간 물질문화의 전래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 즉 바닷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졌

1) 미륵사지 관련 출판물에는 금제사리봉안기를 금제사리봉영기로 보았다. 이는 記文에 나오는 奉迎舍利라는 표현에 따라 금제사리봉영기로 명명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문자 자료가 사리를 봉안하면서 쓴 발원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금제사리봉안기로 지칭한다. 금제사리봉안기의 판독과 해석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임혜경 2014, 156-169).

을 것이란 추정을 전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육로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과 선박을 타고 해로로 물품을 옮기는 것은 물동량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8세기 안사(安史)의 난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잇는 육로가 토번(吐蕃)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해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 교역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바닷길을 통해 고대 한반도에 전래된 물품, 그중에서도 유리구슬과 향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적 분석과 문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유리구슬과 향약(香藥)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그 물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겠다. 다음으로 당송대(唐宋代) 해상활동과 한반도인의 관계, 그리고 불법(佛法)을 구하기 위해 상선을 타고 친축으로 간 승려의 역할 등을 토대로 한반도 내 물품이 전래된 배경에 대해서 논하겠다.

II. 동남아시아에서 전해진 유리구슬과 향약

1. 유리구슬

고대인들은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원료를 배합하여 유리구슬을 만들었다. 성형과 가공이 자유롭고, 다양한 색을 넣어 장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변질이 안 된다는 점에서 여러 형태의 유리구슬이 제작되었다. 유리구슬은 형태와 색상, 화학조성 등을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는 고대 유리의 문화적 변천과 지역 간 교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된다(李仁叔 1989, 79-80; 李仁叔 1993, 443-444).

고대 유리구슬은 용제에 따라 납유리군(Lead glass group), 포타쉬유리군(Potash glass group), 소다유리군(Soda glass group), 알카리혼합유

리군(Mixed Alkali glass group)으로 분류되는데,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까지 화학조성상 포타쉬유리에서 소다유리로 비율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포타쉬유리는 중국 남부인 옛 남월국(南越國) 지역인 베트남 북부와 인도 아리카메두(Arikamedu) 지역에서 제작되어 한반도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인도에서 분석된 포타쉬유리의 경우 이미 한반도에서 발견된 포타쉬유리와 유사함이 지적된 바 있다(박준영 2016, 145-146). 소다유리는 산화알루미늄의 비중이 높은 고알루미나계와 산화칼슘의 비중이 높은 저알루미나계로 양분되며, 마한-백제권역에서 고알루미나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지닌다(김나영 2013, 147).

화학조성 등을 통해 살펴볼 때, 고알루미나계 소다유리는 인도 남부,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제작되어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박준영 2016, 148-149). 고알루미나계 소다유리의 제작지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해안가 근처라는 점도 소다유리의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근래의 과학적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더욱 뒷받침한다. 베트남 옥 에오(Oc Eo) 유적에서 채집한 9점의 유리구슬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옥 에오 유적에서 채집한 유리구슬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는 고알루미나계 소다유리이며, 조사 시편 중 하나였던 적갈색 유리구슬은 고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I 유형으로 밝혀졌다(김규호 외 2016, 162-169). 이는 한반도에 전래된 유리구슬의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내 소다유리는 3~5세기 축조된 오창 수청동 유적, 아산 명암리 밖지프레 유적, 7세기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 등의 출토품을 통해 확인된다. 이중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의 경우, 과학적 조사 결과 태국 산 납으로 합성한 황색의 납주석산화물($PbSnO_3$)을 원료로 사용하여

녹색 및 황색 유리의 일부를 만들었음이 밝혀졌다(도 3). 유리구슬에서 확인된 납동위원소값이 동남아시아(태국)의 방영광과 유사한 점에서 동남아시아 납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것이다(국립광주박물관 2021, 461-463). 이와 유사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백제와 신라의 왕경에서도 나타난다. 백제의 공주 무령왕릉과 신라의 경주 황남대총의 유리구슬에서 납주석산화물, 즉 태국산 착색제가 검출된 것이다(Heisun Yu, Jihyun Ro 2018, 305-310)(도 4).²⁾ 특히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소다유리 군 중 일부는 ‘잡아 늘리기법(Drawn Technique, 혹은 관 자르기법(Tube-cut Technique))’을 사용해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 만든 유리구슬은 남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지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金周弘 2007, 35-37). 원료의 채굴과 생산이란 점에서 원산지와의 제작지는 다를 수 있지만, 태국의 납과 같은 원료이든 유리 자체의 물품이든 현재 전하는 유리구슬 중 일부는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2. 향약

불교의 전래와 함께 한반도에 들어온 대표적인 물품은 향약이다. 향약은 향료(香料)와 약물(藥物)로 나누어지며, 향료는 다시 분향료(焚香料)와 향신료(香辛料), 화장료(化粧料)로 분류된다(永正美嘉 2005, 9). 이 중에서 동아시아 불교의식 때는 분향료를 사용하였는데, 향을 사르는 방법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5년(528) 기사에 나온다.

2) 경주 미추왕릉 C지구에서 출토된 인면유리구슬도 한반도에 유입된 예로 평가된다. 지름 1.8cm의 유리구슬 속에는 순백색 얼굴에 크고 푸른 눈동자, 깊고 높은 콧날, 붉은 입술에 열은 미소를 머금은 이국적인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동자바 켄버 지역에서 출토된 구슬의 문양 및 제작 기법과 유사하다(국립경주박물관 2021, 163).

이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주었다. 왕과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물랐으므로 사람을 보내 향을 가지고 다니며 두루 묻게 하였다...(중략)...때마침 왕의 딸이 병이 중하므로 왕이 목호자에게 향을 사르고 소원을 말하게 하였더니, 병이 곧 나았다.³⁾

위의 기사는 향료(명단향)가 분향료로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다. 왕이 고구려에서 온 승려에게 향을 사르는 방법을 물었다는 것인데,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고 1년이 지난 528년까지 신라에서는 아직 향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교가 먼저 전래된 고구려에서 신라에 앞서 향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7세기에 이르면 국가의 중요한 일에 향을 사른 기록이 확인된다.

A: 건복 29년(612) 이웃한 적이 점차 다가오자 공은 마음에 품은 장하고 큰 뜻을 더욱 분발하여 홀로 보검을 가지고 열박산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빌기를 중악에 있을 때 맹세한 것과 같이하였고, 거듭 “천관께서 빛을 드리워 보검에 영험함을 내려주소서.”라며 기도하였다.⁴⁾

B: 35년(634) 봄 2월에 왕흥사가 완성되었다. 그 절은 강가에 있는데, 채색과 장식이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왕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행향을 하였다.⁵⁾

A는 김유신이 산에 가서 향을 피우며 자신의 염원을 하늘에 빌었다

-
- 3) 於時, 梁遣使賜衣着·香物, 君校勘 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責香徧問...(중략)...時王女病革, 王使胡子焚香表誓, 王女之病尋愈(『三國史記』卷第4 新羅本紀 第4).
- 4) 建福二十九年, 鄰賊轉迫, 公愈激壯心, 獨携寶劍, 入咽薄山深壑之中. 燒香告天祈祝, 若在中嶽誓辭校勘, 仍禱, “天官垂光, 降靈於寶劍”(『三國史記』卷第41 列傳 第1).
- 5) 三十五年, 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舟, 入寺行香(『三國史記』卷第27 百濟本紀 第5).

는 내용이고, B는 백제 왕이 왕흥사를 짓고 매년 절에 가서 향을 피웠다는 내용이다. 위의 기사를 통해 신라와 백제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향을 사르고 염원을 담아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과 하늘(신)이 향을 피움으로써 이어진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고, 종교적인 의식에서 향은 중요한 물품이었다. A와 B의 기사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분향 외에도, 고대 상류층은 일상에서 훈향(薰香)의 용도로 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온달전」에 다음의 기사가 전한다.

지금 당신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운 것이 범상하지가 않고,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부드러운 것이 마치 솜과 같습니다. 반드시 천하의 귀한 분이실 겁니다.⁶⁾

위의 기사를 통해 향약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사치성 물품이며, 당시 귀족층에서 향약을 애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귀족들은 개인의 위생이나 옷의 관리 등을 위해 향을 피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752년 신라의 김태립 일행이 일본에 가져간 물품을 사기 위해 작성된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가 주목된다. 이 목록을 보면, 일본인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여러 향약 중에 ‘훈향(薰香), 훈의향(薰衣香), 읍의향(裋衣香), 의향(衣香)’ 등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 신라에서 의복에 향기를 내기 위한 향재의 사용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하수민 2020, 209).

향약의 사용은 8세기 신라 금석문에서도 나온다. 현존하는 최고의 매향비로 알려진 영암정원명석비(靈巖貞元銘石碑, 786년)에는 ‘합향 십속(合香十束)’, 즉 ‘향 10속을 합하였다’는 명문이 남아있다.⁷⁾ 매향

6) 今聞子之臭，芬馥異常，接子之手，柔滑如綿。必天下之貴人也(『三國史記』 卷第45 列傳 第5 溫達).

은 침향을 만들기 위해 향을 묻는 것인데, 적어도 비석이 세워진 786년 이전부터 매향의 풍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또 다른 금석문인 하동 쌍계사(雙溪寺)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 887년)에도 향약을 사용한 예가 나온다.

혹시라도 호향을 가져다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곧 질그릇에 잿불을 담아 환을 만들지 않고 태우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지 못하겠다. 다만 마음을 정성스럽게 할 뿐이다’고 하였다. 또한 한명을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술에 섯으로 불을 지펴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하겠다. 배를 적실 뿐이다’고 하였다.⁹⁾

이 탑비의 비문에는 호향(胡香)과 한명(韓茗)이 기록되어 주목된다. 여기서 한명은 중국산 차를, 호향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향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중국이 원산지가 아닌 외국산 향을 침향(沈香)이나 백단(白檀) 등으로 보고 있다.¹⁰⁾ 외국산 향의 원산지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지리서인 『제번지(諸蕃志)』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세기 중국 송나라의 조여괄(趙如适, 1170~1231)이 지은 『제번지』에는 당시 외국산 향이라 여겼던 침향과 백단(전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7) 貞元二年丙寅五月十日偕坪行香藏內不忘 立處有州夫梵 □ 合香十束 入苑三人名力知鳥生右 仁開 관독과 해석은 다음의 논문 참조(성윤길 2021, 75-84).

8) 비석에 새겨진 향약이 어떠한 향약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沈香, 栴檀의 향목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永正美嘉 2005, 22).

9) “或有以胡香 爲贈者則 以瓦載糖灰 不爲丸而炳之曰 吾不識是何臭 虔心而已 復有以漢茗爲供者則 以薪爇石釜 不爲屑而煮之曰 吾不識是何味 濡腹而已” 「河東 雙溪寺 眞鑑禪師 大空靈塔碑文」(李智冠 1993, 132, 147).

10) 침향과 백단 외 만일 이 胡가 서역을 가리킨다면 薰陸香, 乳香, 蘇合香 등의 향약이 반입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永正美嘉 2005, 23).

A: 침향(沉香)이 나는 곳은 한 곳이 아니다. 진랍(真臘, 캄보디아)의 것이 상품이고 점성(占城, 참파)의 것이 그 다음이며 슈리비자야(三佛齊), 사바(閩婆) 등의 것은 하품이다. 세간에서는 여러 나라를 상하의 안(岸)으로 나누는데, 진랍, 점성을 ‘상안(上岸)’, 대식, 삼불제, 사바를 ‘하안(下岸)’이라 한다(조여팔 2019, 334-342).

B: 단향(檀香)은 자바의 타강(打綱), 티모르 두 나라에서 나는데, 슈리비자야에도 있다. 이 나무는 중국의 여지(荔支)와 같고 그 잎도 그러하다.¹¹⁾

위의 기록을 통해 침향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나 참파, 슈리비자야 등에서 생산됨을 알 수 있다. 단향은 불경에서 전단(旃檀) 또는 진단(眞檀)이라고 하는데, 침향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자바와 슈리비자야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이 중 침향은 4세기 구담승가제바(瞿曇僧伽提婆)가 한역한 『중아함경(中阿含經)』을 보면 “마치 모든 뿌리의 향기 가운데 침향을 제일로 하는 것과 같고, 모든 나무의 향기 가운데 붉은 전단을 제일로 하는 것과 같다(猶諸根香 沉香為第一 猶諸樹香 赤栴檀為第一)”라고 할 정도로 가치가 높았다.¹²⁾ 또한 송대 정위(丁謂, 962~1037)가 쓴 『천향전(天香傳)』에는 “점성에서 나오는 잔향과 침향은 수가 많다. 그것은 무역으로 이동하는데 번우와 대식으로 들어간다. 대식의 귀한 잔향과 침향은 황금과 가격이 같다...(중략)...숙향, 탈락향이라 하는 것은 모두 자연적으로 향이 된 것이다. 여향시 향 가게에 가면 만 근의 황숙이 있어도 순수한 잔향 백 근을 얻기 어렵고, 백 근의 순수한 잔향이 있어도 상등의 침향 십 수 근을 얻는 것 또한 어렵다”

11) 『香譜』에 이르기를 목피가 실하고 색이 누런 것을 黃檀이라 하고, 목피가 깨끗하고 흰색인 것을 白檀이라 하며, 목피가 짙어 자주색인 것을 紫檀이라고 한다. 이 나무는 모두 견고하고 무거우며 맑은 향이 있으나 백단이 특히 우량하다(조여팔 2019, 352-355).

12) “猶諸根香 沉香為第一 猶諸樹香 赤栴檀為第一” T26, 1:647c04-647c05(T는 『大正新修大藏經』의 수록번호)

라고 전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여러 향 중에서도 특히 침향은 얻기가 어려웠고 황금에 비견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¹³⁾

고대에 가치가 높았던 침향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가 보고되었다. 1959년 칠곡 송림사 전탑 내에서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금제 전각형 사리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물들이 수습되었다.¹⁴⁾ 이때 사리기와 함께 침향과 정향도 발견되었는데, 함께 발견된 유물의 편년 등을 바탕으로 모두 통일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된다(孫信榮 2006, 116-117). 일본 호류지(法隆寺) 오층석탑에서도 동종(同種)의 향목이 나왔다는 점에서, 고대 탑의 봉양물로서 침향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1966년에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수리 과정에서 침향이 발견되었다(도 5). 황금의 가치에 비견되는 외국산 향인 침향이 우리나라의 칠곡과 경주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바닷길을 통한 물품의 교역을 추정할 수 있다. 침향과 더불어 석가탑의 금동제 사리 외함에는 묵서명이 있는 유향(儒香, 乳香)이 보자기에 싸여 있었고, 은제 사리 내함에는 사리병과 향설(香屑)이 발견되어 이목을 끌었다(불교중앙박물관. 불국사 편 2010, 51, 62-64). 송림사와 불국사에서 침향과 함께 나온 유향과 정향도 외국에서 수입된 향약으로 『제번지』에서 원산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A: 유향은 훈륙향(薰陸香)이라고도 한다. 대식(大食)의 말라바르(麻囉拔), 아시시르(施曷), 도파르(奴發) 세 나라의 깊은 골짜기에서 난다...(중략)...코끼리 수레가 대식에서 오면, 대식 사람들은 배에 실어온 물건으로 슈리비자야에서 다른 상품으로 교역하기 때문에 향은 항상

13) “占城所產棧沉至多 彼方貿遷 或入番禺 或入大食 大食貴重棧沈香 與黃金同價... (중략)...日熟香 日脫落香 皆是自然成香 餘杭市香之家 有萬斤黃熟者 得真棧百斤 則為稀矣 百斤真棧 得上等沈香十數斤 亦為難矣” 『天香傳』.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李京姬·崔德卿 2016, 184).

14) 송림사 사리장엄구(7세기 후반)는 금속제 용기의 방형바닥에 연화좌를 안치한 점과 거북형 석함을 外容器로 사용한 점 등에서 隋代의 영향이 확인된다(주경미 2002, 8).

삼불제에 모인다(조여팔 2019, 307-311).

B: 정향(丁香)은 대식, 자바 등 여러 나라에서 나는데, 그 모양이 ‘정(丁)자’와 비슷하여 이름 붙인 것이다. 능히 입 냄새를 막아주어 낭관(郎官)들이 씹으며 일을 아뢰었다. 큰 것을 정향모(丁香母)라고 한다. 정향모가 바로 계설향(鷄舌香)이다(조여팔 2019, 356-359).

위의 기록에는 유향과 정향이 아랍과 동남아시아 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향은 관인들의 구강제로 사용되었고, 유향 등의 향약은 바닷길을 따라 슈리비자야에서 모인 후 교역을 통해 각지로 운반되었다. 슈리비자야의 수도 팔렘방에는 9세기 광둥(廣東) 도자기가 발굴되었고, 이 지역의 전단 나무와 유향이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되었으며, 이를 중국의 시박사에서 정부 독점으로 관세를 떼는 후에 매입했다는 점에서, 고대 바닷길을 통한 물질문화의 교류 양상을 알 수 있다(Geoff Wade 2006, 252-256).

한편 선종(禪宗) 사찰인 성주사에 전단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승엄산성주사사적(崇嚴山聖住寺事跡)』에는 ‘전단림구간(梅檀林九間)’이 전하는데, 이는 전단을 둔 곳이 9간이라는 의미 혹은 전단으로 지어진 건물이 9간이라는 뜻이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전단은 사찰에 필요한 물품이고, 성주사에 전단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단이 유향목재(有香木材)로 동남아시아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된 것이라면(李龍範 1969, 100-101), 바다와 가까운 보령에 위치한 성주사에서 동남아시아산 전단을 일괄 수입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9세기 말에 이미 선종 승려들이 백단향(白檀香) 곧 전단향(梅檀香)을 재배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박남수 2009, 357), 그 근거는 아래 비문의 내용에 기반한다.

때는 시대가 액운에 당하여 세상은 몽매한 때였으므로 재성이 길을 삼한에 비추고 독로는 항상 사군에 퍼져 있음인즉, 하물며 암곡에도 숨

어 피난할 곳이 없었다. 건녕(894-898) 초년에 왕성에 가서 머물면서 담복향을 내불당에 분향하고, 광화(898-900) 말년에는 곧 야군으로 돌아가서 풀을 깎아낸 유허에 전단향을 심기도 하였으나, 유감스러운 것은 마군의 시대를 만난 것이었다. 장차 불도를 선양하고자 할 때, 마침 효공대왕이 보위에 오르고 특히 선종을 흠모하여 받들었다. 당시 대사는 해동에 있어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그 고고함이 천하에 우뚝 드러났으므로 특별히 승정인 법현 등을 보내어 봉필을 전달하여 황거인 왕궁으로 초빙하였다.¹⁵⁾

위는 신라 선승(禪僧) 낭공대사(朗空大師) 행적(行寂, 832~916)의 비문이다. 비문에서 언급된 전단향은 물품으로서의 향약이 아닌 ‘낭공대사가 행한 불법의 흥포’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선승 행적이 마군의 시대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효공대왕 때에 이르러서야 부처의 가르침을 선양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신라에서 최소 9세기에 전단(전단향)을 재배했다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834년 흥덕왕(興德王, 재위 826~836)은 사치 풍조를 단속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신분에 따라 물품의 사용을 금하는 교서를 내렸다.¹⁶⁾ 침향과 자단 등은 성골의 수레와 안장틀(鞍橋)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골 이하의 신분은 사용을 제한하였다.¹⁷⁾ 이는 이미 외국산 물품들이 한반도에 많이 유통되었고, 진골 이하 계층들도 사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신라에서 유통되던 수입산 향약은 앞서 언급된 「매

15) “時當厄運 世屬此蒙 災星 長照於三韓 毒露 常鋪於四郡 況於巖谷 無計潛藏 乾寧初 至止王城 薰簷蔔於焚香之寺 光化末 旋歸野郡 植栴檀於薙草之墟 所恨 正值魔軍 將宣佛道 孝恭大王 驟登寶位 欽重禪宗 以大師 獨步海東 孤標天下 特遣僧正 法賢等 聊飛鳳筆 徵赴皇居” 「奉化 太子寺 朗空大師 白月栖雲塔碑文」(李智冠 1994, 308, 325-326).

16) “興德王即位九年 太和八年 下教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國有常刑”(『三國史記』 卷33 雜志 第2 色服).

17) “眞骨 車林不用紫檀沉香”(『三國史記』 卷第33 雜志 第2 車騎).

신라물해』(752년)에서도 확인된다. 30건에 달하는 「매신라물해」에서 향약의 물품 수는 모두 18종이고, 이 중에서 침향, 정향, 훈륙향(유향), 청목향(靑木香), 각향(藿香), 용뇌향(龍腦香) 등은 이른바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다(박남수 2009, 359). 흥미롭게도 일본인들이 신청한 향약 중 가장 많은 수량의 물품은 정향(10건)이고 이어서 침향(9건), 훈륙향(9건), 청목향(6건) 순으로 나타난다(박남수 2009, 379-380). 이를 통해 일본 관료들이 신라산 토산품보다 당시 유통된 동남아시아산 향약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산 향약이 고가임에도 신청인이 많았다는 점은 일본 내에서 그만큼 동남아시아산 향약에 대한 효능이 알려져 있었음을 말한다.

흥미롭게도 한반도에 유통된 동남아시아산 향목은 일본에서도 기록과 실증자료가 남아있다. 『일본서기』 스이코(推古) 3년(595) 여름 4월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전한다.

침수가 담로 섬에 표착하였다. 그 크기는 1위나 되었다. 섬 사람은 침수인 줄 모르고 장자에 섞어서 부엌 아궁이에 넣어 불을 피우니 그 연기가 멀리까지 퍼져 좋은 향기를 풍겼다. 그래서 이를 괴이하게 여겨 헌상하였다.¹⁸⁾

위의 기사에 따르면 담로(이와지) 섬의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발견한 침수(침향)를 헌상하였다. 이를 통해 향목을 실은 선박이 담로 섬 근처에서 난파되었을 가능성과 당시 조정에 헌상할 만큼 향목이 중요한 재료임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만(大阪灣)의 고대 항구 도시 중 하나였던 사카이(堺) 시에 전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불상한 구가 주목된다. 이 목조불상은 동남아시아산 백단을 사용해 7~8세

18) “三年 夏四月. 沈水漂著於淡路嶋 基大一圍 嶋人不知沈水 以交薪燒於竈 其烟氣遠薰 則異以獻之”(『日本書紀』, 卷第22, 推古天皇 3年(595) 夏4月).

기에 만든 관음보살입상으로 알려져 있다(奈良國立博物館 2015, 86, 242; 桃木至朗 2021, 24)(도 6).¹⁹⁾ 이목구비 표현은 일본 고류지(広隆寺) 목조반가사유상과 유사하며 몸에 비해 얼굴이 크고, 머리에는 화불(化佛)이 있는 보관을 쓰고 있다. 몸에는 각종 장신구를 걸치고 허리는 잘록하며, 현재 양팔은 분실된 상태이다. 이 관음보살입상을 이와지섬에서 발견된 향목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불상의 제작 연대가 7~8세라는 점에서 이 시기 동남아시아산 향목, 혹은 향목으로 만든 불상이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침향은 동남아시아의 진랍과 참파, 슈리비자야, 사바 등이 주요 생산지이며, 그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백제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기도 한다.²⁰⁾ 이와 관련하여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내 쇼쇼인(正倉院) 헌납품이 주목된다. 일본 천황이 도다이지에 헌납한 보물을 보관한 창고인 쇼쇼인에 있던 향목을 분석한 결과 동남아시아산 나무로 판명되었다. <전천향>이라고 불린 침향목을 포함하여 쇼쇼인 소장 침향은 모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米田該典 2008, 57-60). 또한 동남아시아산 백단향과 전단향에 소그드어가 새겨져 있다는 점은 당시 중계무역을 통해 향목이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奈良國立博物館 2004, 115, 177-178)(도 7). 쇼쇼인 소장품은 쇼무 천황의 물품을 그의 사후인 756년에 헌납한 것으로 최하 9,000점 이상의 유물이 있으며 그 가운데 향과 약의 원료인 침향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강희정 2019, 181). 이를 통해 당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 귀족들의 수요에 의해 동남아시아산 향약이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이 불상이 中國 隋代 석조상 혹은 한반도계 불상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堺市博物館 編 1990, 59, 104).

20) 침목은 고급 목재와 향목으로 사용되었는데 참파가 주요 생산지이다. 이 침목은 백제를 경유하여 일본열도에 유통되던 물품으로 추정된다. 침목은 고려와 조선에서도 귀한 목재로 취급되었는데, 역시 참파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18/12/15).

Ⅲ. 해상루트를 통한 교역의 실상

중국 당나라 때 외국과의 교역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으로도 확대되면서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8세기 중반 안사의 난이 일어나 육상 실크로드의 관문이라 할 안서도호부 등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바닷길인 남해로(南海路)가 동서문화 교류의 통로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다(姜鳳龍 2001, 14). 당 현종(玄宗) 개원2년(714) 광주에 처음 시박사(市舶司)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송대에는 당대의 시박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여러 항구 도시에 시박사를 두었다. 북송대에는 광주, 천주(泉州), 항주(杭州), 명주(明州), 밀주(密州)에, 남송대에는 광주, 천주, 항주, 명주, 밀주, 상해(上海), 수주(秀州), 온주(溫州), 강음군(江陰軍), 판교진(板橋鎮)에 대외 무역 관리 기구인 시박사를 두어(이원근 2005, 169, 180-182), 송과 번국(蕃國) 상업 선박의 출·회항 수속, 선박 화물의 보관, 금지된 물품(禁物)의 검사, 외국 상인의 보호 등을 감독하였다(李京姬·崔德卿 2016, 47-48).

당대 시박사의 설립에서도 알 수 있듯이, 8세기경에는 중국의 동남 해안인 광주 등지에서 페르시아인(波斯人)과 아라비아인(大食人), 인도인 등이 남해로를 통해 내왕하면서 문물교류를 주도하고 있었다(姜鳳龍 2001, 15). 해양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등의 상인들은 인도양을 넘어 자바·수마트라·캄보디아 등 남해 일대까지 상업 시장을 넓혔고, 남중국 무역의 중심지 광주에 진출한 후 복주(福州), 공주(恭州, 南昌), 항주, 명주로 북상하여 운하에 따라 소주(蘇州)·양주(揚州)까지 그들의 시장을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김문경 1995, 22-23). 이들 중 일부 상인들은 중국까지 오는데 그치지 않고, 신라와 일본에도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 신라의 진골 이하 여성들에게 금지 품

목으로 지정된 공작의 꼬리(孔雀尾), 비취조의 깃털(翡翠毛), 터키석으로 만든 장신구인 슬슬(瑟瑟), 바다거북의 등껍질인 대모(玳瑁)는 모두 사치성 소비품으로 규정되었는데,^{(도 8)²¹⁾} 대부분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김문경 1995, 20-21; 강희정 2018, 72-73). 이러한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이 이미 한반도에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물품들은 신라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기에 외국 상인들이 신라로 와서 직접 교역했을 수도 있고, 혹은 외국 상인과 신라 상인들이 중국에서 만나 교역했을 가능성도 있다. 9세기의 기록이긴 하지만,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보면 신라인들은 중국의 양주, 초주(楚州), 해주(海州), 밀주, 등주(登州), 소주, 명주에 머물면서 해상운송과 상업, 국제교역, 선원, 조선업 등 활발한 해상활동을 하였다. 특히 양주의 당대 나성지(羅城址)에서 수 점의 신라자기와 고려청자 파편이 출토되었고, 그 인근에서 아랍의 유리그릇, 페르시아의 녹유도기와 일본의 수우각요(水牛角料) 등도 출토되었다(李侑珍 2001, 111-127). 또한 양주의 효감사(孝感寺) 서상각(瑞像閣)의 수리 비용 중 일부를 파사국(波斯國)과 점파국(占婆國, 참파)에서 온 상인들에게 분담시켰다는 기록도 남아있다(『入唐求法巡禮行記』 卷1 開成 4年(839) 正月 7日). 따라서 이 일대에 신라 상인들과 외국 상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고, 이곳에서도 교역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상인의 방한과 교역에 대해서는 일본 최초의 정사인 『일본서기

21) “眞骨女. 表衣禁闕繡錦羅. 內衣·半臂·袴·襪·履, 並禁闕繡羅. 袂禁闕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綴珠. 冠禁瑟瑟鈿. 布用二十八升已下, 九色禁緒黃”(『三國史記』 卷第33 雜志 第2 色服). 한편 옥두품 이하 사람들에게 구수와 탐등의 사용을 금하는데, 이 역시도 외국산 물품으로 보고 있다. “六頭·五頭品. 禁金·銀及鍍金·銀, 又不用虎皮·毬毬·毬毬”(『三國史記』 卷第33 雜志 第2 器用; 李龍範 1969, 98-99).

(日本書紀)』(720년)에서도 확인된다.

가을 9월에 백제 성명왕이 전부 나솔 진모귀문, 호덕 기주기루, 물부 시덕 마가모 등을 보내어 부남의 보물과 노 2구를 바쳤다.²²⁾

위의 기사는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 부남산(扶南産) 보물(물품)을 바쳤다는 것인데, 이는 백제에서 부남산 물품을 교역을 통해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³⁾ 동남아시아의 최초기 고대국가에 해당하는 부남은 1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姜熺靜 2010, 30). 부남-중국-백제로 이어지는 중계무역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남-백제로 연결되는 직접무역이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543년 이전부터 백제가 부남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543년 백제 사신이 가져온 부남의 보물은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이거나 혹은 유리구슬을 감입한 물품으로 보인다(김규호 외 2016, 169). 백제 무령왕릉과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에 포함된 납의 산지가 태국이라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²⁴⁾

642년에는 백제 사신이 곤륜의 사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백제조사의 점인들이 “작년 11월에 대좌평 지적이 죽었습니다. 또한 백제의 사신이 곤륜의 사신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²⁵⁾

22) “秋九月 百濟聖明王遣前部奈率眞牟貴文·護德己州己婁與物部施德麻奇牟等 來獻扶南財物與奴二口”(『日本書紀』, 卷第19, 欽明天皇 4年(543) 秋9月).

23) 부남(푸난)의 고대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조(최병욱 2006, 42-48).

24) 주2 참조. 한편 함평 신덕고분에서 발견된 연리옥과 금색 유리식옥(중층유리옥)도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한 유물로 추정된다(국립공주박물관 2018, 78-79, 405-407).

25) “百濟甲使人等言 去年十一月 大佐平智積卒, 又百濟使人擲崑崙使於海裏”(『日本書紀』, 卷第24, 皇極天皇 元年 2月).

위의 기사에서 등장하는 곤륜에 대해서는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명칭, 참파 또는 진랍, 슈리비자야나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가릉(訶陵, 古미타람, 중부 자바)이라는 견해가 있다.²⁶⁾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어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어렵지만, 곤륜의 사신이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곤륜의 사신이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까지 온 것은 모종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해된다(李道學 1991, 98-101; 조흥국 2009, 64). 즉 원거리 항해를 통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당시 일본을 상대로 활동하던 백제의 무역상을 배제하고, 일본과의 직접무역을 시도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고대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쳐 원거리를 오고 간 무역선들이 존재했고, 앞서 언급한 쇼소인에 보관 중인 항목이 동남아시아산 나무라는 점에서 교역 형태의 다양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고대 원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무역선은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발견된 난파선을 통해 그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난파선으로 벨리통(Belitung) 난파선, 치레본(Cirebon) 난파선, 인탄(Intan) 난파선이 있다. 이 중 벨리통 난파선은 바투히탐(Batu Hitam) 난파선, 당(唐) 난파선으로도 불린다. 벨리통 난파선은 선박의 건조 방식, 선체의 형태, 목재 분석을 통해 아랍의 배로 밝혀졌고, 배 안에 실렸던 장사요(長沙窯) 도자기, 동전(개원통보와 건원중보), 선박 목재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등을 통해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도 9, 도 10). 벨리통 난파선은 200톤급의 무역선(최대 길이는 20~22m, 너비 6.5m)으로 추정되며, 선적된 유물만도 약 67,000여 점에 이른다. 중국 도자기만 6만여 점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당시 아랍-동남아-중국 간 해상무역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제 술잔, 금제 팔찌, 은제 합 등의 금속공예품, 동남아시아 향신료와 저울추, 서아시아의 유리기

26) 곤륜에 대한 각각의 견해는 다음의 논문 참조(조흥국 2009, 58-61; 권오영 2019, 84-85; 강희정 2018, 67-68).

와 도기 등이 출수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8, 212-237). 치레본 난파선은 중국 도자기, 청동제 금속공예품을 비롯하여 엄청난 양의 주석괴와 납괴가 실려 있었다. 선박에서 나온 중국 동전을 분석한 결과 침몰 시기는 970년경으로 추정된다(신중국 2021, 88). 선박의 길이는 30m에 이르며 플라카 인근 지역에서 건조된 것으로 보인다. 벨리통과 치레본 난파선의 선체 길이는 중국 남동해안을 오가며 원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곤륜의 배(崑崙舶)를 연상시킨다(강희정 2018, 84-85).

9세기 바닷길을 통한 문물의 교류는 아랍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아랍의 지리학자인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ādhbih, 820~912)는 그의 저서 『제도로 및 제왕국지(Kitāb al-Masālik wa-al-Mamālik)』(846년)에서 당시 중국 동남해안의 4대 국제무역항(베트남 교주, 광주, 명주, 양주)을 차례로 언급한 다음 신라로부터 비단, 검, 우황, 사향, 알로에, 마구(馬具), 담비가죽, 도기(道器), 범포(帆布), 계피, 겹작약에 이르기까지 11종의 물품을 수입해 간다고 기술했다(무함마드 칸수 1997, 227; 정수일 2002, 217; 정진한 2020, 141-145). 이는 아랍 문헌에 등장한 신라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9세기 바닷길을 통한 아랍과 신라와의 교역상을 말해준다. 아랍의 문헌보다는 늦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이 한반도(고려)를 방문한 기록도 남아있다.

A: 이 달에 대식국(大食國)의 열라자(悅羅慈) 등 10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대식국은 서역(西域)에 있다).²⁷⁾

B: 9월 신사 대식국(大食國)에서 만하(蠻夏)와 선라자(洗羅慈) 등 10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²⁸⁾

27) “是月，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來，獻方物 [大食國在西域]”(『高麗史』世家 卷第5 顯宗 15年 9月).

28) “九月 辛巳 大食蠻夏·洗羅慈等百人來，獻方物”(『高麗史』世家 卷第5 顯宗 16年 9月).

C: 11월 병인 대식국(大食國)의 객상(客商) 보나합(保那盍) 등이 와서 수은(水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 등의 물품을 바쳤다. 유사(有司)에게 명하기를 객관(客館)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였고, 돌아갈 때는 황금과 명주(金帛)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²⁹⁾

이상의 기록을 통해 1024년, 1025년, 1040년에 대식의 상인들이 고려를 방문했고, 각종 물품을 고려 왕실에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몰약은 대식 미르바트(麻囉抹國)에서, 소목은 진랍(감보디아)과 섬라국(暹邏國, 태국)에서 난다고 『제번지』에 전한다(조여팔 2019, 312-314, 379-380).³⁰⁾ A~C의 기록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이들이 수은, 용치, 점성향, 몰약, 대소목 등의 많은 물품을 가지고 고려 왕실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사무역의 형태로 민간에서 교역이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각종 향료와 약재 등은 외국에서 온 사치성 소비재로 신라 때부터 귀족층에 선호되었던 물품이다. 다음으로 1024년과 1025년에 연이어 방문한 대식 상인들의 규모가 주목된다. 두 차례에 걸쳐 100명씩이나 방한했다는 점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한 대규모 사절단의 내방을 의미한다. 해로를 통해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물동량은 육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했기 때문에 원거리 무역 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³¹⁾ 이처럼 바닷길을 통한 교역은 동서 간 물품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29) “十一月 丙寅 大食國客商保那盍等來, 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 命有司, 館待優厚, 及還, 厚賜金帛”(『高麗史』世家 卷第6 靖宗 6年 11月).

30) 한편 섬라국에서는 황속향과 나갈속향(羅褐速香), 강진향, 침향, 화리목(花梨木), 백두구(白豆蔻), 대풍자(大風子), 혈갈(血竭), 등나무 덩굴(藤結), 소방목, 화석(花錫), 상아(象牙), 물총새 깃털(翠毛) 등이 생산되었고, 소방목과 강진향 등은 중국에 공물로 바쳤다(마환 2021, 79-80).

31) 당대 선박 한 척은 낙타 2,000마리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선박의 규모에 대한 비교자료가 더 필요하겠지만, 항해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해로를 통해 더 많은 물품을 운반할 수 있다(崔在洙 1996, 290-291).

IV. 물질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구법승

기원후 3세기부터 동아시아의 승려들은 불전(佛典)을 구하고 붓다의 성적(聖跡)을 참배하기 위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로 향했다. 이들의 왕래는 험준한 산과 바다를 지나야 하는 고행길이었기에 인도를 향한 승려 중 일부만이 인도에 닿을 수 있었고, 이들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문물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구법인들 중 문헌에 등장하는 이름이 알려진 승려는 최소 165명이다. 여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695명까지 합하면 모두 860명에 이른다. 이 중 사신을 갔던 송운(宋雲, 6세기), 위절(韋節), 두행만(杜行滿), 이의표(李義表), 왕현책(王玄策), 장사인(蔣師仁), 양회경(梁懷敬), 하처라발(何處羅拔, 이상 7세기) 등의 비(非) 승려를 제외하더라도 구법승의 총수는 812명에 달한다(이주형 2009, 13-15). 이들의 왕래를 통해 불교뿐만 아니라 물질과 물품의 전래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법인의 인도 왕래 시도는 모두 197회이며, 이중 바닷길을 이용한 사례는 모두 63회(32%)이다. 구법행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4세기 2회(◀2), 5세기 7회(◀5 ▶2), 6세기 3회(◀2 ▶1), 7세기 44회(◀36 ▶8), 8세기 6회(◀4 ▶2), 9세기 1회(◀1)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7세기 육로에 버금갈 정도로 바닷길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이주형 2009, 29). 이는 당대 해상무역로의 발견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페르시아와 중국-광주 사이의 직항로 개통은 동서 간 물자의 운반과 더불어 승려의 구법행을 통한 불교 문물의 전파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다.³²⁾ 승려들은 불

32) 『新唐書』 「地理志」에 수록된 賈耽(730~805)의 「廣州通海夷道」에는 당시 광주에서 페르시아만 서안의 오볼라(烏剌國)까지 이어지는 해로의 노정과 구간의 항행일정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가탐이 제시한 노정은 네 구간이다. 제1구간은 광주에서 수마트라까지, 제2구간은 수마트라에서 사자국까지, 제3구간은 사자국에서 이라크의 末羅國(바스라 혹은 서남부의 주바이르)까지, 제4구간은 인도 서남해안

법을 구하기 위해 중국 청주(靑州, 2회), 광주(廣州, 11회), 당시 중국령이었던 베트남 북단의 교주(交州, 11회)에서 출항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기항한 후 목적지인 인도에 다다랐다(이주형 2009, 27-28).

바닷길을 이용한 대표적인 승려로 법현(法顯, 337~422)과 의정(義淨, 635~713)이 있다. 법현은 동진(東晉) 시대의 승려로, 399년 장안(長安)을 출발하여 서역을 지나 인도로 들어갔다. 약 8년간 인도 각지에서 불법을 구하고 불적을 순례한 뒤, 바닷길을 이용해 스리랑카(師子國)에 가서 2년간 체류했다. 이후 수마트라의 팔렘방을 거쳐 412년 7월에 중국 청주 장광군(長廣郡)으로 돌아왔다. 중국으로 돌아온 법현은 서역에서 인도, 남해에 이르기까지 30여 나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불국기(佛國記)』를 펴냈고, 현재 이 책은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으로 전한다. 법현의 업적을 사모한 의정은 671년 광주(廣州)에서 출발해 바닷길을 통해 수마트라(슈리비자야)의 팔렘방을 거쳐 673년 인도에 갔다. 10여 년 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불법을 구했고, 685년 귀국길에 올라 팔렘방을 거쳐 689년 광주로 귀환했다. 같은 해 다시 팔렘방으로 가서 695년 경론 약 400부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의정은 수마트라에 머물면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웠고, 함께 간 승려들에게도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게 했다. 이후 구법행을 떠났던 동아시아 승려 60여인의 기록인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과 인도와 남해 여러 나라의 불교와 계율, 승원생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당남해기귀내법전(大唐南海寄歸內法傳)』을 찬술했다. 이들이 남긴 문헌은 고대 해상교역로를 복원하고 당시의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인도를 향한 구법행은 한반도 출신 승려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헌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한반도 출신 중에서 인도로 떠난 구법승은

의 몰래국에서 아프리카 동해안의 三蘭國을 거쳐 페르시아만의 오랄국까지이다 (정수일 2004, 355-358).

고구려의 현유(玄遊), 백제의 겸익(謙益), 신라의 혜업(慧業), 현각(玄恪), 아리아발마(阿離耶跋摩), 현태(玄太), 혜륜(慧輪), 구본(求本), 실명(失明) 2인, 혜초(慧超), 무루(無漏), 원표(元表), 오진(悟眞)으로 모두 14명이다. 이는 문헌에 기록된 출신지가 알려진 구법승 92명 중 중국에 해당하는 지역(티베트, 교주 등 제외) 출신이 65명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전체 구법승과 중국 구법승 인원의 각각 약 15%와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교주 출신이 4인, 애주(愛州) 출신이 2인, 일본 출신이 2인, 소그디아나와 가릉 출신이 각 1인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한반도에서 인도로 갔음을 알 수 있다(이주형 2009, 37). 이 중에서 바닷길을 이용한 구법승은 고구려의 현유, 백제의 겸익, 신라의 혜초와 실명 2인이다.³³⁾

<표 1> 인도로 간 한반도 출신 구법승

고구려	백제	신라
현유(◀海路)	겸익(◀海路, ▶海路)	혜업(◀北道, 날란다 입적) 현각(◀北道 혹은 티베트-네팔路, 인도에서 병사) 아리아발마(◀北道, 날란다 입적) 현태(◀티베트-네팔路, ▶北道) 혜륜(◀北道) 구본(◀미상 ▶미상) 실명 신라승 2인(◀海路) 혜초(◀海路, ▶北道) 무루(◀北道, ▶北道) 원표(◀미상, ▶미상) 오진(◀미상, ▶네팔-티베트路)

출처 : 이주형 편 2009, 426-451

이들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만 존재해 바닷길을 이용한 그들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 1908년 중국 감숙성 둔황석굴 제17호

33) 승려 원표를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하고, 그의 구법로를 당항포→동주→북건성→실리불서→스리랑카→천축→네팔→토번(혹은 네팔-토번 대신 파미르 고원)→우전국→장안→북건성→경주→장흥 전관사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계미향 2015, 197-204).

장경동에서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필사본이 전하지만, 이마저도 첫 부분 전체와 두 번째 부분의 앞머리와 끝부분의 일부가 잘려나간 절략본(節略本)이라 여정의 전모를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혜림(慧琳)이 편찬한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를 통해 혜초의 구법행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불교 서적의 난해한 음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일종의 주석서로, 『왕오천축국전』 원본에 나오는 어휘들을 소개하고 있다. 혜초의 바닷길을 통한 여정은 아래 <표 2>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2> 바닷길과 관련한 어휘

출전	어휘	해석
상권	각멸	옛 이름은 임읍국(林邑國)이다.
	평류	배를 띄워 멀리 노니는 모습이 마치 평초(萍草)가 물 위에 떠다닐 적에 바람을 따라 일정하지 않은 모습과 같다는 뜻이다.
	대모	『고성』에서는 “거북이 종류인데 껍데기에 무늬가 있고 빛이 난다. 혹은 금빛 광채가 나고 맑으며 무늬는 없다”고 전한다.
	귀별	자라(鼈) 중에 작은 것으로 형태가 둥근 거북 종류를 말하며 배 아래에 껍질(甲)이 없다.
	발해	큰 바다가 넘쳐 솟아오르는(噴湧) 것이다. 혹은 큰 자라(大鼈)의 이름이라고도 한다.
	분궁창	큰 파도가 용솟음치는 것(大波上湧)을 말한다. 궁창(穹蒼)은 허공을 뜻한다.
	원타	물에 사는 개충(介蟲)이다. 그 형태가 마치 수궁(守宮)의 네 다리와 같으며 꼬리가 있고 몸의 길이는 대여섯 자쯤 되는데 그 가죽으로는 복을 만들 수 있다. 등에는 네모나 비늘이 있어 마치 바둑판 무늬와 같다.
	야자장	남쪽의 과일나무 이름인데 그 형태가 파초(芭蕉)와 같고 그 잎사귀로는 자리를 만들기 충분하며, 껍데기로는 새끼를 꼬아 선박(船舶)을 엮어낼 수 있다. 이것은 물에 잘 건널 수 있어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뿐더러 질기기까지 하여 큰 선박에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압박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를 말한다.
중권	나형국	온몸에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것을 라(裸)라고 한다. 혹은 인(人)을 뜻으로 하여 나(倮)로 쓰기도 하고, 혹은 신(身)을 뜻으로 하여 라(裸)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피하고 일반적으로 꺼려 잘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 : 동국역경원 편 2000, 342-346

위의 <표 2>는 『왕오천축국전』의 상권과 중권에 나오는 어휘들이다. 상권의 ‘각멸(閤蔑), 평류(萍流), 대모(玳瑁), 귀별(龜鼈), 발해(渤海), 분궁창(溟穹蒼), 원타(鼃鼃), 야자장(椰子漿), 압박(壓舶)’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바다(혹은 해양가)와 관련한 어휘들이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각멸의 옛 이름은 임읍국으로 일남군의 남쪽, 베트남 중부의 해안지대에 위치한 참족의 왕국이다.³⁴⁾ 발해와 분궁창은 바다에서 파도가 솟아오르는 모습이고, 압박은 이 시기 동서 간을 항해하던 선박을 의미한다. 이처럼 해초는 인도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기록했다. 중권에서 등장하는 나형국(裸形國, 말레이반도 북부 서안 혹은 수마트라섬 북부 니코바르제도) 역시 배를 타고 인도로 간 해초의 여정을 시사한다(高柄翊 1987, 873-885).³⁵⁾

고구려의 현유도 그의 스승인 중국 승려 승철(僧哲)과 함께 스리랑카에 가서 머물렀다고 전한다(『大唐西域求法高僧傳』, T2066, 51:8c). 다만 백제 겹익의 경우,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현재 전하지 않는 『미륵불광사적』을 인용한 점과 겹익의 행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³⁶⁾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자료는 영세하지만, 한반도 출신 구법승들이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오가며 물질문화의 전파자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 출신 구법승의 행적과 관련하여 2006년 캄보디아 남부 캄풍

34) 중국어 발음으로 거매가 되는 각멸은 임읍국, 즉 참파 왕국이 아니라 오늘날 캄보디아에 대한 현지인의 명칭인 크메, 즉 크메르(Khmer)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조흥국 2009, 69).

35) 『영애승람』(1451년)에는 나형국(니코바르 왕국) 사람들을 동지나 동굴에 살면서 남녀 모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지낸다고 기록하였다(마환 2021, 103).

36) 백제 승려 겹익이 해로를 통해 중인으로 갔다는 견해는 다음의 논문 참조(이도학 2017, 85-88).

참(Kampong Cham)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이 주목된다(도 11). 이 금동보살입상은 2010년 프리어갤러리에서 개최된 캄보디아의 청동상 전시에서 소개되었고, 이후 중국 남조(南朝) 조상으로 추정되었다(藤岡穰 2016, 225-226). 그런데 이 금동보살입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주로 쓰인 통주식(通鑄式) 주조법으로 제작되었고, 가운데 부처상을 중심으로 양옆에 위치하는 협시 중 하나로 보인다. 금동보살입상의 양 옆으로 옷자락이 지느러미처럼 펼쳐진 양식은 6세기 전반 동위(東魏) 양식 조각에서 기원하여 삼국시대 백제의 금동보살입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강희정 2018, 82-83). 대표적인 예로 부여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입상(보물)을 들 수 있다(도 12). 이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캄퐁 참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같이 양옆으로 뻗은 옷자락은 끝부분이 아래를 향해 단정하게 묘사되었다. 몸 앞에서 X자형으로 교차한 천의는 평양 원오리사지(元五里寺址) 출토 소조보살입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입상(덕수2772) 등 6세기 한반도 보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이다. 또한 2017년에 발견된 양양 진전사지 출토 금동보살삼존입상처럼 장방형의 얼굴에 시무외여원인의 수인, 아래로 뻗은 옷자락, 무릎 앞에서 교차하는 X자형 천의, 복련좌 등이 캄퐁 참 출토 금동보살입상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요소이다(도 13). 이뿐 아니라 영주 숙수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부여 규암면 출토 금동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삼존입상(국보)도 수인과 옷자락 처리 등에서 캄퐁 참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친연성을 가진다(도 14).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緣起法頌)과 경주 석장사지 출토 탑상전의 연기법송이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었다는 점에서(강희정 2014, 53-54), 캄퐁 참 출토 금동보살입상 역시도 바닷길을 통한 한반도-동남아 간 교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교류의 중심에는 문헌에 전하는 한반도 출신 구법승과 알려지지 않은 무

명의 승려들이 있었고, 동서 간 물질문화의 확산에 그들의 역할은 지대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고대 바닷길을 통한 물질문화의 전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고대 바닷길을 따라 한반도에 유입된 대표적인 물품으로 유리구슬과 향약이 있다. 마한·백제권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고알루미나계 소다유리는 인도 남부,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작되어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평 예덕리 1호분, 공주 무령왕릉, 경주 황남대총의 유물 중에서 태국산 착색제를 내포한 유리구슬이 존재한다는 점도 물질문화의 이동을 뒷받침한다. 원료의 채굴과 생산이란 점에서 원산지과 제작지는 다를 수 있지만, 태국의 납과 같은 원료이든 유리 자체의 물품이든 현재 전하는 유리구슬 중 일부는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향약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한반도에 들어온 물품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에 염원을 담아 향을 사르기도 하고, 일상에서는 위생이나 옷의 관리 등을 위해 향을 피웠다. 당시 유통되던 향약은 신라에서 온 물품을 사기 위해 작성한 목록인 「매신라물해」에서도 확인된다. 이 목록에 기록된 침향, 정향, 훈록향(유향), 청목향 등은 이른바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산품이다. 일본 관리들은 동남아시아산 향약을 대거 구입하고자 했는데, 이는 이 지역 향약에 대한 가치와 선호를 의미한다. 일본 도다이지 내 쇼쇼인에 있던 향목이 동남아시아산 나무라는 점도 당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산 향약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송대 동서 간 물품의 이동은 해상루트의 발달에 관련한다. 동남아시아 인근에 난파한 9~10세기 선박을 통해서 원거리 교역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랍과 일본,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바닷길을 따라 외국 무역상들이 한반도에 내방하였고, 직접 혹은 중계무역의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1세기 초 아랍 상인들의 공식적인 한반도 방문은 이전 시기부터 사무역의 형태로 교역이 일어났음을 추정케 하고, 바닷길을 통한 원거리 무역은 육상 무역에 비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활동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물질문화의 확산에는 승려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들이 남긴 문헌을 토대로 고대 해상교역로를 복원하고, 당시의 문화상을 살필 수 있다. 한반도 출신 혜초도 불전을 구하고 성적에 참배하기 위해 선박을 타고 천축으로 간 승려 중 한 명이다. 승려들은 구도의 길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물질문화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캄보디아 캄퐁 참출토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하여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 경주 석장사지 출토 탑상전의 연기법송 등도 구법승들의 행적과 교류의 결과로 생각된다.

투 고 일: 2022년 06월 29일

심 사 완 료 일: 2022년 08월 11일

게 제 확 정 일: 2022년 08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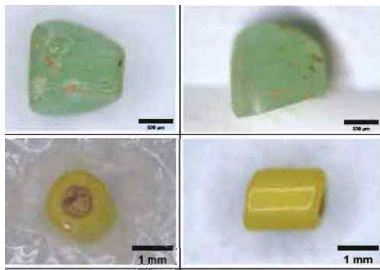
부록. [도판]



<도 1>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발견 당시 모습



<도 2> 사리장엄 안 진주 등



<도 3>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출토
유리구슬



<도 4> 무령왕릉 출토
황색유리구슬



<도 5> 석가탑 수습 침향편



<도 6> 관음보살입상, 7~8세기,
일본 사카이시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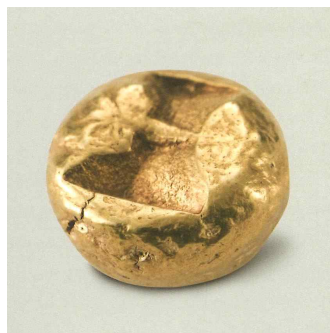
<도 7> 일본 도다이지 쇼쇼인 소장
침향목



<도 8> 대모로 만든 빗, 신라 8세기,
삼성미술관 리움



<도 9> 선채외판재와 화물
지지판재 사이에 쑤여있는 사발들



<도 10> 인도네시아 금화, 9세기,
지름 0.7cm, 무게 2.5g



<도 11> 금동보살입상, 6세기, 캄보디아
캄퐁 참 출토, 캄보디아 프놈펜
국립박물관



<도 12> 금동보살입상, 백제 6세기,
부여 군수리사지,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도 13> 금동보살삼존입상, 백제
6세기, 양양 진전사지 출토



<도 14> 금동보살삼존입상, 백제
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참고문헌

『高麗史』

『高僧法顯傳』

『大唐南海寄歸內法傳』

『大唐西域求法高僧傳』

『三國史記』

『日本書紀』

『入唐求法巡禮行記』

姜鳳龍. 2001. “8-9세기 東北亞 바닷길의 확대와 貿易體制의 변동: 張保臯 船團의 대두 배경과 관련하여.” 『歷史教育』 77: 1-31.

姜燾靜. 2010. “6세기 扶南과 山東의 사르나트 양식 불상 -남방해로를 통한 인도 불교미술의 東傳-.” 『中國史研究』 67: 29-57.

_____. 2014.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승(緣起法頌)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38-61.

_____. 2018. “해상 실크로드와 불교물질문화의 교류.” 『東亞研究』 37-1: 59-91.

_____. 2019. “물질의 전래와 불교신앙.”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50: 177-189.

계미향. 2015. “天竺求法僧의 行蹟과 思想 研究-7~8세기 慧輪·元表·慧超를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75: 185-218.

高柄翊. 1987. “慧超의 印度往路에 대한 考察.” 『佛敎와 諸科學: 開校八十周年紀念論叢』.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국립경주박물관. 2021. 『오색영릉 한국의 고대 유리와 신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2018. 『武寧王陵: 新報告書 IV』.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2021. 『咸平 禮德里 新德古墳』.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대전: 국립문화

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 3. 서울: 국립

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8. 『바다의 비밀 9세기 아랍 난파선』. 목포: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권오영. 2014. “백제와 동남아시아의 교섭에 대한 검토.” 『충청학과 충
청문화』 19: 201-219.

_____. 2018. “사람얼굴 막새기와 백제와 고대 베트남을 잇다.” 『한거
레』(12.15.).

_____.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서울: 세창출판사.

김규호 외. 2016. “베트남 옥 예오(Oc Eo)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재질 및
특성 연구.” 『문화재』 49-2: 158-171.

김나영. 2013. “三國時代 알칼리 유리구슬의 化學的 特性 考察.” 공주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김문경. 1995. “7~9세기 신라인 해외무역 활동.” 『한국 복식』 13: 1-26.

金周弘. 2007. “古代 琉璃玉 製作技術 研究.”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은. 2013. “고대 香藥의 유통과 불교의례-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경주사학』 37: 1-32.

나가마사 미카(永正美嘉). 2005. “新羅의 對日香藥貿易.” 『韓國史論』 51:
7-83.

동국역경원 편. 2000. 『一切經音義』. 서울: 東國譯經院.

마환. 홍상훈 역. 2021. 『영애승람(瀛涯勝覽) 역주』. 서울: 동문연.

모모키 시로(桃木至朗). 2021. “물품에서 본 동남아시아사-동아시아/동북아
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물품으로 읽은 동유라시아 세계의 역
동성』.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무함마드 간수(정수일). 1997. “남해로의 동단-고대 한-중해로.” 『장보고
와 청해진』. 서울: 해안.

_____. 2002. 『문명교류사 연구』. 서울: 사계절.

- _____. 2004.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서울: 학고재.
- 박남수. 2009.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 55: 341-391.
- 박준영. 2016. “한국 고대 유리구슬의 생산과 유통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맥락.” 『韓國考古學報』 100: 134-173.
- 불교중앙박물관. 불국사 편. 2010.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서울: 불교중앙박물관.
- 성윤길. 2021. “현존 최고의 매향비: 영암 정원명 석비.” 『문화재』 21: 70-99.
- 孫信榮. 2006. “松林寺 5층전탑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27: 111-127.
- 신숙. 2016.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미술사연구』 31: 29-57.
- 신종국. 2021. “동남아시아의 난파선.”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5: 81-90.
- 옥나영. 2019. “신라 시대 ‘香’과 그 문화-香的 용례 검토를 통하여.” 『승실사학』 42: 133-153.
- 요네다 가이스케(米田該典). 2008. “정창원 보물, 향, 향목류의 과학조사와 그 의의.”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학술심포지움』.
- 李京姬·崔德卿. 2016. “宋代 沈香 계통의 產地와 유통.” 『中國史研究』 104: 31-61.
- _____. 2016. “宋代 沈香 계통의 분류체계와 용도.” 『中國史研究』 100: 171-203.
- 李道學. 1991.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韓國學報』 17: 67-105.
- _____. 2017. “백제와 인도와의 교류에 대한 접근.” 『동아시아불교문화』 29: 71-96.
- 李龍範. 1969.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交易品.”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서울: 新丘文化社.
- 이원근. 2005. “중국 송대 해상무역관리기구로서의 市舶司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44: 167-195.

- 李侑珍. 2001. “9世紀 在唐新羅人の活動에 대하여: 『入唐求法巡禮行記』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13: 107-130.
- 李仁叔. 1989. “韓國 古代 유리의 분석적 研究(I).” 『고문화』 34: 79-95.
- _____. 1993. “동서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고대 유리.” 『한국학연구』 5: 443-468.
- 이주형 편. 2009.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서울: 사회평론.
- 李智冠. 1993. 『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서울: 伽山文庫.
- _____. 1994. 『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서울: 伽山文庫.
- 임혜경. 2014. “彌勒寺址 출토 백제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13: 149-181.
- 정진한. 2020. “신라가 이슬람 세계로 수출했다는 물품 목록에 관한 재고—이븐 쿠르다지바(820~912)의 『諸도로와 諸왕국지』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48: 134-160.
- 조여팔, 박세욱 역. 2019. 『바다의 왕국들: 제번지 역주』. 경산: 영남대학 교출판부.
- 조흥국. 2009.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서울: 소나무.
- 주경미. 2002. “韓國 古代 佛舍利莊嚴에 미친 중국의 영향.” 『美術史學研究』 235: 35-60.
- _____. 2009. “百濟 彌勒寺址 舍利莊嚴具 試論.” 『역사와 경계』 73: 1-32.
- _____. 2015. “동남아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 현황.” 『역사와 경계』 97: 385-429.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崔在洙. 1996. “古代中國의 海上活動과 海上실크로드: 古代로부터 唐宋 시대까지.” 『해운물류연구』 22: 283-306.
- 하수민. 2020. “고려시대 동아시아 훈의(熏衣)문화와 향재의 교역 연구.” 『문화재』 53: 204-221.
- 허진아. 2019. “초기철기-원삼국시대 구슬 해상교역과 환황해권 정치 경관의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106: 51-79.

후지오카 유타카(藤岡穰). 2016. “중국 南朝 造像의 제작과 전파.” 『미술자료』 89: 215-264.

奈良國立博物館(나라국립박물관). 2004. 『法隆寺: 日本佛教美術の黎明』.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_____. 2015. 『白鳳: 花ひらく 仏教美術』.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堺市博物館(사카이시박물관). 1990. 『堺市博物館優品圖錄』. 堺: 堺市博物館.

Yu, Heisun and Jihyun Ro. 2018. “A Study on the Provenance of an Opacifying Agent(PbSnO₃) in Yellow and Green Glass Beads Excav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4-4: 305-311.

Wade, Geoff. 2006. “An Early Age of Commerce in South Asia, 900 - 1300 C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0-2: 221-265.

Abstract

Material Culture Transmitted to Korean Peninsula via Maritime Route

KANG, Kun Woo

Graduate Program in South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transmission of material culture along the ancient maritime route. Glass beads, pearls, tortoiseshell, incense, and medicine are among the most representative goods (materials) imported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Southeast Asia. The pieces of high-alumina soda glass excavated in the former territories of Mahan and Baekje are assumed to have been produced in South India, Sri Lanka, and Southeast Asia. Concerning incense and medicine, their use and circulation are proved by the texts such as *Samguk sagi* (三國史記) and *Mae Silla mulhae* (買新羅物解). Ancient people burnt incense to commemorate important events of the person or the state, to take care of the garment and its hygiene. There is a piece of Agarwood in Shōsōin, Tōdaiji, in Nara, Japan. The statue of Avalokitesvara from the seventh or eighth century CE, made of White Sandalwood(白檀) from Southeast Asia, is preserved in the city of Sakai(堺), Japan. These two items enable us to estimate the value and scope of circulation regarding incense and medicine. The transportation of goods between East and

West during the Tang and Song dynasties' reigns influenced the maritime route's development. The Maritime Trade Bureaus (市舶司) established in the major ports in China, and the shipwrecks dated to the ninth and tenth centuries discovered near Southeast Asia, confirm the range of the long-distance trade.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 Korean peninsula would have traded directly or via an intermediate exchange. The role of monks, in addition to merchants, is noteworthy concerning the spread of material culture.

Keywords: maritime route, glass bead, incense and medicine, pilgrim monks, material culture